

전북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비상

대다수 지난해보다 하락... 군산·임실 5등급 곤두박질

고창은 8년연속 전국 1위

전북 도내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어 개선방안이 절실하다.

국민 권익위원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도내 대부분 기관 단체와 교육지원청의 청렴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등급으로 구분되는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도내 공공기관은 무주 교육지원청 단 한곳에 불과했다.

전북도는 지난해와 같은 2등급을 받았다. 또 전북 교육청은 지난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2단계 올랐다. 하

지만 기초단체와 교육지원청 등 일부 기관이 최하위인 5등급까지 곤두박질치는 등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군산시와 임실군이 5등급, 남원시와 부안군, 무주군이 각각 4등급을 받았다.

남원시는 2010년에 1등급이었지만 올해는 4등급으로 떨어졌다. 또 지난해에 1등급을 받았던 부안군도 4등급으로 추락해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지원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군산·익산·남원·완주·장수·고창 교육지원청이 4등급을 받았고, 전주·정읍·김제 교육지원청이 각각 3등급에 그치는 등 도내 대부분 교육지원청의 청렴도가 하위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교육청이 청렴도를 끌어 올릴 것이라며 ▲반부패 인프라 구축 ▲정책 투명성 제고 ▲부패 유발요인의 개선 등을 통해 2등급으로 뛰어 오른 것을 제외하면 상당수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고창군은 종합 청렴도 9.29점, 금품 혐용 제공률 0%로 전국 군(郡)부 1위를 8년 동안 연속으로 이룬 쾌거를 거둬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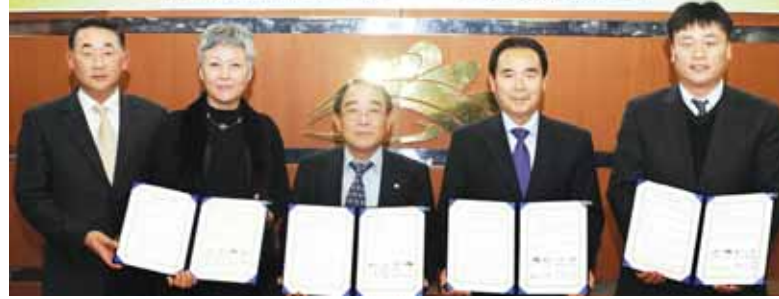
반면 부안군은 지난해 1등급에서 올해 4등급으로 하락했다. 부패통제 등 위험 정도에 대한 행정제도 개선 태도 등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대조를 이뤘다.

전주=김철수기자 knews@

순창군, 절임산업 중심지로

3개 업체와 양해각서 체결... 연간 2만t 생산

세계화지원센터 및 절임류산업발전 양해각서



순창군과 국내 대표 식품기업들이 순창지역을 절임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기쁨을 마련했다.

순창군은 최근 군청 영성회의실에서 사조대림, 심그림 영농조합법인, 한국절임(주)과 양해각서를 체결, 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절임산업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의 활성화와 더불어 순창 절임산업을 국내 1위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협약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순창군은 무, 배추, 고추 같은 절임 원료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사조 대림은 국내 유통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심그림 영농조합법인과 삼무, 오이

피클 등 연간 80여만대의 생산라인을 마련해 기술을 이전하고, 한국절임이 생산을 맡기로 했다.

순은 연간 2만t의 절임 농산물 생산으로 연간 1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됨에 따라 장기보관을 위한 초대형 장류·절임 도물저장고도 내년에 건립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 이행은 12월부터 시작돼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기술이전과 생산라인이 완료되는 2013년 6월이면 순창 한국절임(주)는 50여명의 추가 고용창출과 연매출 100억원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남원 지리산 둘레길에 '농가 맛집' 오픈

지리산을 한바퀴 도는 장거리 도보길인 '지리산 둘레길' 구간에 고향의 맛을 선사할 '농가 맛집'(사진)이 문을 열었다.

남원시는 "지리산 둘레길 2~3 코스에 산나물, 흑돼지를 주원료로 한 농가맛집인 '지리산 나물밥' 집을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

이곳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해 100㎡ 규모로 신축한 곳이다. 맛집 내부는 건강을 고려해 황토로 마감했으며 탐방객이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식사할 수 있도록 꾸몄다.

매뉴 중 사골 흑돼지 수육은 지리산 흑돼지를 사골육수에 살짝 익혀 소스와 함께 먹는 요리로 남원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다.



또 흑돼지 갈비수육, 딱딱비는 이 집만의 특별한 맛으로 탐방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산나물밥 집을 운영하는 권정희 대표는 "방문객에게 지리산의 기운을 음식과 몸매에 담아드리도록 온 정성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리산 둘레길'은 총거리 274km의 도보길로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경남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의 3개도 5개시·군 20개 읍·면 117개 마을을 지난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할머니 소나무' 지리산 천년송

남원시 산내면 와운마을 산자락에 자리한 '지리산 천년송'(천연기념물 424호)이 겨울에도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다. '할머니 소나무'로도 불리는 지리산 천년송은 수령 500여년으로 키 20m, 가슴둘레 4.3m에 이른다.

남원시 산내면 와운마을 산자락에 자리한 '지리산 천년송'(천연기념물 424호)이 겨울에도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다. '할머니 소나무'로도 불리는 지리산 천년송은 수령 500여년으로 키 20m, 가슴둘레 4.3m에 이른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수학여행 1번지' 남원, 올 8만2천명 다녀갔다

남원시가 '수학여행 1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일 남원시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419개교 8만2726명의 수학여행단이 남원 관내 관광지를 다녀갔다.

이는 남원시가 '수학여행 1번지'로 부상하기 위해 내세운 당초 목표인 5만5000여명에 비해 2만7000여명이 증가한 것이다.

전북 도내 14개 시·군을 찾은 전체 수학여행객 25만명 가운데 36%를 차지한 숫자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51%(4만2945명)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구 등 영남권이 1만6456명(20%), 충청권이 9578명(12%), 강원도를 포함한 기타지역 1만3747명(17%) 등이다.

지자체는 당일 여행이 많았으나, 올해는 소규모 테마체험형 수학여행의 시스템 전환과 숙박시설 인프라 구축의 지역 이점이 잘 적용돼 숙박인원은 62%인 5만1685명으로 나타났다.

남원시 관계자는 "관광설명회, 수학여행 관계자 팸 투어, 서안문 발송을 추진하고 협조교사와 함께 만드는 테마형 수학여행 코스 개발 등으로 남원시가 최고의 수학여행지로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단신

전북교육청, 내년 고교 수업료·입학금 동결

전북도교육청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고교 수업료와 사립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모두 동결한다. 수업료는 지난 2009년부터 5년째, 입학금은 2006년부터 7년째 동결이다. 이에 따라 연간 수업료는 지역에 따라 비특성화 고교가 59만8800~127만2000원, 특성화 고교 42만~123만1200원, 방송통신고 8만2800원이다. 입학금은 3급지인 도서지역이 1만1500원, 1급지인 평준화 지역이 1만6200원이다. 방송통신고는 5000원이다. /전주=김철수기자 knews@

군산해경,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

군산해양경찰서는 내년 1월까지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군산해경은 "사기도박, 사행성 오락, 정박한 선박에서 어구나 장비를 절취하는 행위, 숙박비 명목으로 선원 임금 착취 등이 매년 많이 발생한다"며 "전담반을 편성해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장물취급업체, 선원소개소, 과거 전력자 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고 2일 밝혔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조직·계획적으로 어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위관과 하역과정에서 부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백성기자 bs8787@

(사)한울안운동, 남원시 다문화 지원센터 운영

남원시는 지난 26일 (사)한울안운동(대표자 한지현)과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사)한울안운동은 내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지원센터는 한국어 교육, 통·번역서비스, 자녀언어 발달, 언어영재교실, 다문화가족 방문학습지 지원, 직업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환주 시장은 "지원센터가 관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기관·단체와 연계 서비스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순창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합동 위령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회장 조휴정)는 지난 30일 순창군 쌍치면 금평리 위령탑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합동 위령제'를 지냈다. 이날 위령제에는 황숙주 순창군수, 최영일 군의회 의장을 비롯 한 기관·단체장,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황숙주 군수는 추모사에서 "호국영령들의 뜨거운 애국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 국가안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고창군, 서울 전통시장 5곳과 농산물 판매 협약

고창군은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 5개 전통시장과 농산물 판매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방이시장, 마천시장, 석촌시장, 풍납시장, 새마을시장에 신선한 농특산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군장군은 생산자인 농민, 유통자인 전통시장, 소비자인 대도시 민간 직거래 협약을 통해 농산물 판로확보,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 농산물 판매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방이시장 추창식 상인회장은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를 이기려면 우수 농산물 확보가 필수"라며 "직거래로 확보한 신선한 농산물을 싸게 팔아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철수기자 knews@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50만원~ 특가가발 발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2013년 상해화동이공대학 겨울방학 단기간 연수 EVENT 상해화동이공대학 한국사무소 개소 특별이벤트